



# 제주와 서울을 잇는 거리의 시간여행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특별교류전 '역사를 걷다. 서울 육조거리와 제주 관덕정거리' 주제

조선시대 서울의 심장부 '육조거리'와 제주의 중심지 '관덕정거리'가 함께 재조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공동으로 마련한 '역사를 걷다. 서울 육조거리와 제주 관덕정거리' 특별 교류전을 통해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박물관 간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획된 전시다.

지난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바당수업水業' 전시에서는 제주의 독특한 농업·어업·종교·예술 문화가 소개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왕조의 중심지였던 서울 육조거리와 탐라국

이래 제주의 정치·행정·군사 중심지로 기능한 관덕정거리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한다. 두 도시의 상징적 공간을 통해 얽힌 역사와 문화를 살피며, 서울과 제주를 잇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두 지역의 문화적 연대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육조거리는 경복궁 앞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이르는 대로로, 조선시대 정치·행정의 중심지이자 백성과 왕이 소통했던 공간이었다. 왕의 행차, 사신 영접, 신문고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례와 행사가 이뤄졌으며, 국가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던 곳이다.

관덕정거리는 탐라국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중심 공간으로 과거시험, 군사 훈련, 관리 심사 등 다양한 활동의 장이었다. 또한 이재수의 난, 3·1절 발포 사건 등 제주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했다.

전시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4월 27일까지다. 개막식은 9일 오후 2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본관 로비에서 개최된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두 도시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고, 서울과 제주의 문화적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두 박물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마을마다 간직한 이야기, 노래가 되다

###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카름, 노래에 스며들다' 11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제주 마을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어 다시 관객 앞에 펼쳐진다. 지난해의 감동에 새로움을 더해 한층 풍성한 무대로 돌아온 전문예술단체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단장 홍성숙)의 기획연주회 '카름, 노래에 스며들다'를 통해서다.

이번 공연은 '카름'(작은마을, 동네를 뜻하는 제주어)을 주제로 지난해 합창단이 선보였던 '색(色)다른 제주의 카름'에 이은 두 번째 기획연주회다. 총기획은 제주출신 안현순 작곡가가 맡았다.

지난해 공연에선 '애월찬가'와 '꿈꾸는 연미' 등을 작곡한 안현순 작곡가가 작곡과 해설로 함께하며 인어의 전설을 품고 있는 '귀덕인어의 노래'와 서귀포 대포해안의 주상절리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대포의 노래 '대포찬' 등이 초연된 바 있다.

김훈석 지휘와 김민정의 반주로 진행되는 올해 공연에선 지난해 초연곡들과 함께 새롭게 창작돼 첫선을 보이는 애월읍 고내리의 '포세이돈의 큰바위얼굴'(전송이 작사·작곡), 성산읍 수산리의 '부부식 이야기'(안현순 작사·작곡), 한경면 청수리의 '낭만 청수리'(안현순 작사·작곡)가 무대를 채운다.

또 4·3의 노래 등 제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노래들이 관객들의 마음에 파스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연미마을 부녀회가 직접 출연해 문명숙 시, 안현순 작곡의 '꿈꾸는 연미'를 들려주며, 소프라노 권효은과 테너 송영규가 솔로와 합창 무대로 풍성함을 더한다.

이날 공연은 소프라노 솔로와 합창, 그리고 캘리그래피 김효은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귀덕인어의 노래'로 막을 내린다.

홍성숙 단장은 인사의 글에서 "제주 마을들의 관심과 사랑을 노래로 만들자" 기획하고, 마을의 자산들을 노래에 담아 보전하고 보존하겠다는 자긍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연주를 한다"고 소개했다.

공연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오은지기자



이선희 작 '제주시리즈'

## '성큼성큼 지지직 아른아른' 엮은 여정

### 6일부터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8일까지 창작공간 개방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이 1년간 걸어온 창작의 여정이 전시로 이어진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6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 보고전 '성큼성큼 지지직 아른아른 그리고'를 개최한다.

전시 제목에 사용된 의성어와 의태어는 작가들의 역동적이고 밀도 있는 창작 과정을 함축적으로 담아

낸 표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입주 작가 6명(이선희, 고은혜, 김승환, 박길주, 이계나, 전기숙)의 인터뷰 영상과 연간 레지던시 활동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창작 과정과 레지던시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일부터 8일까지 예술공간 이아 4층 입주 작가들의 창작 공간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가 진행된다. 관람객은 각 작가의 작업실에 방문해 창작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작가와 대화할 수 있다.

전시 제목에 사용된 의성어와 의태어는 작가들의 역동적이고 밀도 있는 창작 과정을 함축적으로 담아

## 새로운 전시공간 시몽갤러리 개관

### 7일부터 개관기념전

제주시 원노형에 새로운 전시공간 시몽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시몽갤러리는 기존 음식점이었던 한옥 콘셉트의 상업시설을 그대로 개조해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느낌을 주며 독립적인 공간에 북카페를 겸하고 있다.

개관을 기념해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작가모임 '미술 동인 카라'를 초대해 'it's beautiful'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엔 고숙진, 고인자, 권순미, 송부미, 예미킴, 최민서, 한진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저마다 개성있는 미적 세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작가들이다.

고숙진 시몽갤러리 관장은 "예술과 음악, 책, 커피 모든 것이 어우러진 북카페와 갤러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열린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의 '색(色)다른 제주의 카름' 공연 모습.

## 제주의 온기와 생동감 예술로 빛다

### 예술융합창작소 제주나비 정기전 '제주 ON, 제주 ON'

제주의 따뜻함과 생동감이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돼 선보여지고 있다.

예술융합창작소 제주나비가 마련한 제5회 정기 전시회 '제주 ON, 제주 ON'에서 참여 작가 저마다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표현된 제주의 온기를 마주할 수 있다.

'제주 ON, 제주 ON'은 예술융합창작소 제주나비가 제주를 주제로 3년간 진행 중인 프로젝트 'Jeju in on at'의 두 번째 전시다. 영어

전치사 'in, on, at'이 가진 공간적, 시간적, 관계적 의미를 통해 제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이번 전시는 특히 'on'의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KBS 제주방송국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엔 신상화, 신윤정, 김소희, 고연숙, 추현미, 서지은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작가들은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술적 풍경으로 풀어냈다.



고연숙 작 '제주바탕 on'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오은지기자

## 수상을 축하합니다

### 국무총리 표창



새마을지도자 송산동협의회 회장 한영욱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새마을지도자 대륜동협의회 회장 오부숙



동홍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행미



서홍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장은진



새마을문고 서귀포시지부 이사 강상훈

###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표창



새마을지도자 천지동협의회 회장 현시홍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회장 성병주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주정신



대천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정심



새마을문고 표선면분회 회장 오봉림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영예로운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새마을운동 추진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MU 서귀포시새마을회 회장 김 경 민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회장 박두홍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회장 나성순  
직·공장새마을운동서귀포시협의회 회장 김용관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회장 송춘화  
외 서귀포시 새마을가족 일동